

“도민 모두 지혜 모아 난관 극복”

전북상협, 2025 신년인사회 · 제19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주최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5년 신년인사회 및 제19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8일 호텔리한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문승우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 도내 시장 군수 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계 대표와 지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5년 전주상공회의소 사자성어로 선정된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펼쳐진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의 뜻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전북경제가 다시 도약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했으며, 김정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상공인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올해는 전주상의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미래 100년을 위한 상공회의소의 역할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박차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주최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5년 신년인사회 및 제19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지난 8일 호텔리한 전주에서 개최됐다.

를 가하겠다”면서, “새민금사업을 비롯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등 지역 현안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상공인과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도전과 변화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전북의 위상을 높였으며,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율려 “2025년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

다”면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초화’라는 슬로건으로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율려 신년인사회와 병행해 실시한 제19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주)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이사, 본상 기업 부문은 신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형태), 경영인 부문은 선진공업(주) 김상용 대표이사,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정석케미칼은 1990년 설립된 아

해화학을 전신으로 한 화학제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우레탄 방수 도료와 방수제를 주로 생산하였고, 꾸준한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내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신한방직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섬유 전문 기업으로 원사와 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며 섬유 산업에서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사이다

김상용 선진공업 대표이사는 1995년 3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에 금속 가구 제조 전문 기업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교육용 가구를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교육용 책걸상을 제조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맞춘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사무실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가구도 일부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다.

이번 경제대상 수상자들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난해 12월 18일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중관 이사장을 심사위원장으로 경제유관기관 관계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은 2025년 을사년 첫 정례조화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 전북농협과 함께’

전북농협, 새해 첫 정례조화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8일 2025년 을사년 첫 정례조화와 함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23년1월 시행되었다.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전북농협은 올해 타 지역 교차기부, 출향 도민대상 홍보강화, 지역 우수 농축산물 및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답례품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을 살리고, 농축산물 답례품으로 농민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2025년 한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설명절 대비 24일까지 식품안전 특별점검 실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설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일부터 24일까지 ‘식품안전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240여개 계통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에는 △식품안전 현장점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지역본부 특별상황실 운영 등 식품안전 사고예방에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8일 이정환 총괄본부장, 김삼형 전북검사국장 등 합동으로 농협전주유통센터를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만호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차나무’ · ‘올리브’ 미래 재배 적지는?

농진청, 재배 적지 늘어 ‘차나무’는 2100년대 전국 재배 가능 예상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목인 녹차용 차나무와 올리브의 미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내놔다.

녹차용 차나무는 최근 짧은 층에서 녹차(러레, 디저트) 관련 수요가 높아지며 관심을 받고 있고, 올리브는 기

후변화에 따라 관상용으로 주목받는 품목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재배 적지를 예측한 결과, 녹차용 차나무 재배 지역은 급속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올리브 재배 적지도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녹차용 차나무 재배 적지는 제주, 하동, 보성지역으로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급격하게 늘어 2030년대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올리브 재배 적지는 제주, 거제, 남해지역에 불과하지만, 재배 적지가 서서히 북상해 2030년대에는 서산 상주, 강릉 등 중부지역까지 확대 예측됐다.

/김옥기 기자

중기중앙회, CES 2025 참관… 한국 중소기업 혁신성과 확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하 중기중앙회 대표단)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글로벌 기술 박람회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현지시간 7일부터 10일까지 나



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8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포함해 약 1,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K-스타트업 통합관과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현재까지 CTA가 발표한 461개의 혁신상 중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하였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130개로 60%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기 기자



전북서남상의,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는 지난 7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박 일 정읍시의회 의장,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지역상공인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행사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을 염원하는 동영상 시청과 함께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정읍농수산 김적우 대표, (주)한국폴리우드 은희준

대표이사, (유)쌍두산업 권순태 대표이사, (유)정읍드론항공 김철민 대표에게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최종필 회장은 신년사에서 “40여년간 상공인들의 숙원이었던 신축회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가 1%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측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인내심을 발휘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 낸다는 인내의 양 의 의지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